

젊은 인재육성에 있어



30년 넘게 지정기도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정진해온 월공 스님은 200회를 앞두고 있는 토요 철야정진 법회를 통해 지장보살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월공 스님은 군부대 지원의 공로로 군종교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월공 스님은 열악한 교육환경의 농촌 청소년을 위해 '등용 청소년 공부방'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월공 스님(가운데).

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값 운동도 펼치고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 불자들을 위한 무료 장학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고 힘든 일이지만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투자가 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보람을 얻는 동안 건강이 많이 상했다. 기도와 수행이 본분사인 스님이다. 게다가 은사 스님의 입적으로 인해 큰일을 치르다 보니 피로가 누적된 것이다. 스님은 결국 2012년 2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뇌동맥)출혈'로 쓰러졌다. 스님은 골든타임을 훨씬 넘긴 뒤 6시간이 넘어서 전주의 큰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다. 스님은 보름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어야 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스님은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약간의 시력 감퇴와 기억력 감퇴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도 스님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등용청소년 공부방'이 국가 사회 동향의 심성과 자질, 불교적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포교와 논산훈련소 '불교어머니회' 지원

군승 출신이기도한 스님은 지역 향토연대 법당의 법회 지원을 요청 받고 매일 한차례 법회에 참석해 군 장병들을 만나고 있다. 남월 103연대 호국 홍제사 법당에서 장병들을 위해 법회를 열어온 것이 어느덧 10여 년째다. 스님은 군장병들 역시 미래의 국가栋梁이라는 생각에 그들에게도 성심껏 마음을 쏟고 있는데,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후원하고 있는 '불교어머니회'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논산훈련소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어머니회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5년 전부터 사중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영선사의 중심 신도들이라 할 수 있는 지장철야기도회 회원들과 함께 월 50~60원 정도를 후원하고 있다.

스님은 "군법사 출신으로 큰 힘이 되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여러 사찰 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위한 환경관련 시민활동

영선사 위치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접경지역이라 사찰의 신도들 역시 전북과 경남의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스님의 고향인 경남 함양이어서 자연히 대사회활동도 어렵지 않게 양쪽을 오가며 활동하게 됐다. 스님은 남원 사람연합회와 남원불교대학, 경남 함양사람연합회와

함양불교대학에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2000년에 결성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지리산 법반대운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한 동안 잠잠하던 지리산법 건설이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으로 또 다시 고삐를 들고 있어 잠시 접었던 지리산 법반대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스님은 함양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공명선거 실천운동, 지리산법반대 운동 등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랜 활동으로 하나둘 떠날 활동가들의 빈자리를 스님은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상 농산물 파동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과 함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배추파동이 발생하면 배추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럴 때면 영선사 신도들을 동원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남원시 인월면은 고냉지라서 양질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 고가에 판매되고 있지만 역시 파동은 피해 갈 수가 없다. 이럴 때면 스님은 영선사의 도시 신도들과 연계해 농민들을 돕고 있다. 평소에는 제철에 생산되는 고로쇠, 고추, 고사리, 오미자 등의 농산물을 도시 신도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부분 사보를 통해 공지하고 1천여 명이 이르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법일기

여성포교는 존중으로 부터

이메일이 막 보급될 때 쯤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어느 보살에게서 메일이 왔다. 아니 보살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자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문투와 글의 내용으로 보아 신심있게 절에 다니는 불자는 아닌 듯도 했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불교에서는 여성을 차별하여 출가하여도 남자스님보다 아래고, 차별이 심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투였다.

그날부터 많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면 안되겠냐며 출가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몇 가지를 묻고는 소식이 끊어졌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여성차별을 강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교 내부의 상황을 보면 8경계법이 있어 언뜻 그

동안 불성이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인정을 받아 당당한 수행자, 구도자의 반열에 오르자 많은 여성들이 출가 수행하였다. 경전의 많은 곳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비구니의 이야기가 당당히 실려 있다.

초기 여성수행자 대종은 사회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사회적 기본 교육의 미비로 인해 비구니승단 자체만으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 당시 지식인으로써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비구니승단에 의지토록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현재의 시각에서 남성에게 종속된 분위기로만 인식하는 승단과 사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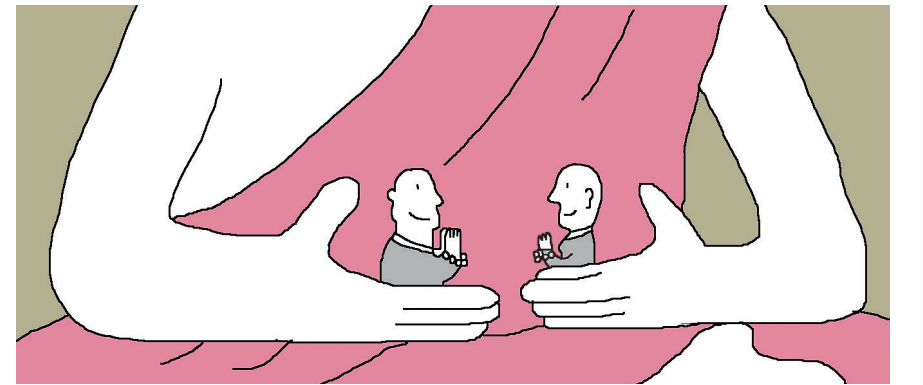


그림 박구원

래보일지 모르지만 종교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여성을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일원으로 인정해주시길 종교가 불교이다.

질문한 그 보살은 당시 불교계에 논란이 되었던 비구니 팔경계법을 보고 약간 분노 섞인 감정으로 내게 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난다. 여러 차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은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금강경에는 진리의 가르침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이것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진정 불교의 평등사상의 기준이라고 본다. 비구니 팔경계법은 비구니승단의 온전한 보전과 승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사실 부처님은 카스트제도 하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차별이 극심했던 2,500년 전 여성의 구도적 갈망과 사회적 차별구조를 극복하고 여성출가의 조화를 위해 많이 고심하셨다. 끝내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성을 출가수행의 주체로 당당히 받아들여주었다.

타종교에서는 여성을 종교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종속적 부속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살아계시는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구니승단의 보호는 비구승단보다 잘 정비된 사회의 공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 또한 남녀평등이 실현된 현대사회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 대안에서는 여성 출가자들을 적극적 받아들여 사원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우리 승단도 부처님의 근본적 가르침과 방편적 교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함께 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재미난 말로 여성신도들을 불보살과 같은 '보살님'이라고 부른다. 여성신도를 존중해 극존칭을 쓰면서 비구니 승단을 차별해서야 되겠는가?

가끔 법문을 하면서 자존심 있는 한국의 여성이라면 당연히 불자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때 그 불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늘 진정한 구도자가 되어 차별받지 않는 승단에서 하루빨리 아라한과를 증득하기를 기대해본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since 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12월 / 6절

• 12절(벽결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25.8cm × 26.5cm

6월(벽결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30.5cm × 31cm

한지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수첩 달력 200부 이상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650** 원
• 규격: 9.5cm × 13.4cm

탁상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미니 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450** 원
• 규격: 8.9cm × 9.5cm

금피지 등표 • 정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3.5cm × 70cm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면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